

임기영 “업그레йд 마쳤다...이젠 실전이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업그레이드를 끝낸 KIA 타이거즈의 '잠수함' 임기영이 본격적인 2025시즌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6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야구 트레이닝 센터인 트레드 에슬레틱스에서 훈련을 해왔던 임기영이 11일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마련된 KIA 캠프에 합류했다.

임기영은 “처음에는 뭔가 어색했다. 진짜 팀에 처음 온 느낌이었는데”라며 “오랜만에 얼굴 보고 같이 훈련하니 좋다. 팀 분위기도 좋은 것 같다”며 합류 소감을 밝혔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행사한 임기영은 3년 총액 15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에 계약을 맺으면서 KIA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FA선수가 됐지만 지난 2년의 극과 극의 성적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임기영은 불펜으로 나선 2023시즌에 64경기에 출전해 82이닝을 소화하면서 2.9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팀의 전전후 투수로 맹활약했지만 FA를 앞둔 지난 시즌에는 37경기 45.2이닝, 평균자책점 6.31의 성적을 내는 데 그쳤다. 그리고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이었던 그는 지난해에는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다.

결국 눈길 그는 '예비 FA'였던 임기영은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지 못했다.

임기영은 “재수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 1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년부터 큰 욕심도 없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야구 유학 마치고 캠프 합류
투구 매커니즘 분석·변화 시도
부상없이 경쟁에서 이길 것

니까 FA를 신청했다”며 “구단에서도 양보해 주셔서 빨리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도입된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가 사이드암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임기영은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기영은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됐다. ‘이게 와 이것도 불이라고?’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게 영감이 많았던 것 같다. 워낙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임기영은 발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단 올 시즌 스트라이크 상단이 하향 조정되는 만큼 투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임기영은 “어찌 됐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야 한다”며 “지난 시즌에 워낙 부진했다. 그래서 트레이드에 갔다. 지금 아니면 바꿀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임기영은 트레이드에서 자신의 투구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변화를 시도했다.

임기영은 “수정할 것을 이야기 많이 해줬다. 허리 턴이랑 왼팔, 왼다리 이런 게 좀 많이 빠르다고 했다. 팔 잡는 거 빼고는 많이 좋아져서 왔다”며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코치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바꿨다. 몸을 안 만들고 급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쉬면서 하기도 했는데 캠프 오기 전에 한 번 더 피칭하고 왔는데 괜찮았다”고 이야기했다.

FA로 새로운 시즌을 맞는 임기영은 큰 욕심 없이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의 해를 보낼 생각



트레드 에슬레틱스에서 훈련을 해왔던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임기영이 11일 미국 어바인 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이다.

임기영은 “큰 욕심이 있었으면 올해 FA를 신청했을 것이다. 작년보다는 진짜 잘하고 싶다. 지난해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다. 팀에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며 “23년처럼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은 아프지 않는 것이다. 뭐 할 때마다 다쳐버리니까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제일 우선은 팀 우승이고, 개인적으로 아프지 않고 23년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쟁이다. 외국인 투수들과 현종이 형, 필승

조 빼고는 다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겠다”며 “트레드에서 배우면서 많이 좋아졌다. 몸을 더 잘 쓰는 느낌이 든다.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도영아, 메이저리그서 만나자”

샌디에이고 내야수 최병용, KIA 캠프서 시즌 준비
KBO 불발 뒤 美 유학...2003년 한국 첫 MLB 지명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최병용이 '빅리그'에서의 만남을 다짐했다.

11일 KIA의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에 '손님'이 찾아왔다.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참여한 그는 한국 야구 드래프트 역사에 최초의 기록을 남긴 내야수 최병용이다.

신입고 출신의 최병용은 KBO리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뒤 미국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미국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간 그는 지난 2023년 메이저리그(MLB) 드래프트에서 20라운드 전체 611순위로 샌디에이고의 지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병용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미국 대학을 거쳐 MLB 신인 지명을 받은 첫 선수가 됐다. 지난해 루키리그에서 도전의 시즌을 보냈던 그는 포수 김태근과의 인연으로 KIA 캠프에서 함께 훈련을 하게 됐다.

최병용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연이 됐다. 팀 캠프는 3월 초에 들어간다. 우승팀과 함께 훈련하게 돼서 영광이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훈련 분위기가 밝고 재미있게 하고, 잘 준비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화이팅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기 할 것 하는 느낌인데, 여기는 단체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3-4년 만에 한국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훈련 참가 소감을 밝혔다.

캠프에 합류하면서 김도영의 만남을 기대했던

그는 “확실히 잘 친다. 자기만의 타격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보고 배워야 한다”며 “나중에 빅리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웃었다.

최병용과 훈련을 소화한 김도영도 “확실히 다르다. 매커니즘적으로 다르다. 공 던지는 것도 다르다. 송구도 좋다”며 “내가 미국 갈 때쯤 형이 먼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고 다른 리그에서의 만남도 기대했다.

KIA 캠프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된 최병용은 “뭐라도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왔었다. 미국이 선진 야구를 하니까 새로운 걸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국에 왔는데 운 좋게 드래프트가 됐다”며 “타격에 자신 있다. 두 단계 이상 풀업되는 게 목표다. 안 다치고 한 시즌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김도영(왼쪽)과 샌디에이고 최병용이 '빅리그 만남'을 다짐하면서 미국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야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14일 개막

임성재 “준비는 끝났다”

‘우즈 텃밭’ 토리파인스에서 시즌 첫 우승 도전

임성재가 ‘타이거의 텃밭’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의 남코스(파72)에서 열리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줄곧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치러졌지만, 올해는 골프장 인근 지역이 최악의 산불 피해를 봐 대회 장소를 옮겼다.

대회 장소를 옮기면서 3년이 넘는 임성재의 우승 감증을 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토리파인스 골프코스에서는 해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이 열리며, 임성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유난히 강했다.

7번 출전해서 2002년 6위에 이어 2023년에는 4위, 그리고 지난달 치러진 올해 대회에서도 공동 4위에 올랐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은 1, 2라운드 때 토리파인스 북코스와 남코스를 번갈아 치고 3, 4라운

드는 남코스에서만 치른다.

남코스가 더 길고 어려운데도 임성재는 다른 선수들이 다들 어렵게 여기는 남코스에서의 성적이 늘 좋았다.

이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4라운드 모두 남코스에서 개최한다.

임성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마친 뒤 “예전부터 토리파인스 남코스를 좋아했다. 롱게임을 잘해야 성적이 좋은 코스인데, 내 장점이 롱게임이라서 아무래도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우승 후보를 미리 내다보는 PGA 투어닷컴 파워랭킹도 임성재를 로리 매켄로이(북아일랜드), 폴린 모리카와(미국)에 이어 3위로 꼽았다.

2021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통산 2승 고지에 오른 이후 아직 세 번째 우승을 이루지 못한 임성재에게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최지 변경은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김주형, 안병훈, 김시우도 출전한다.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일찌감치 시즌 첫



우승을 신고한 매켄로이는 2연승을 노리고, 지난해 12월 손바닥을 다쳐 이번 시즌 출발이 늦었던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우승 사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는 출사표를 올렸다.

작년 우승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2연패에 도전한다.

토리파인스는 타이거 우즈(미국)의 텃밭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곳에서 열린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7차례 우승했고, 토리파인스 남코스에 개최된 2008년 US오픈도 제패했다. /연합뉴스

우즈 “준비가 안됐다”

모친상으로 출전 포기

타이거 우즈(미국·사진)의 필드 복귀가 미뤄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겠다는 우즈는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11일(한국시간) 출전을 포기했다.

우즈는 지난해 7월 디오피를 치르고 난 뒤 허리 수술에 이은 재할, 그리고 훈련 기간을 거치느라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출전해 치료와 재활,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혀 필드 복귀를 예고했던 우즈는 최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복귀를 알렸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기에 일찌감치 우즈의 복귀 무대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달 5일 우즈의 어머니 쿨티다 우즈가 타계하면서 우즈의 복귀 일정이 미뤄졌다.

우즈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준비가 안 됐다. 모친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친상을 치르느라 예정된 훈련과 연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대회에 나설 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자가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모친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마무리되지 못해 대회 호스트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우즈로서는 선수로 출전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우즈는 최근 자신이 장성한 스크린 골프 대회 TGL 출범과 출전, 모친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드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즈 대신 대기 선수였던 제이크 냅(미국)에게 출전권을 줬다. /연합뉴스